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5월 8일(금)  
--(윤력 3월 22일)--  
Пятница  
8 мая 2026 г.  
№ 18 (1218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불멸의 연대'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전승절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드론 및 소형 교통수단 보안조치 강화

5월 9일(토) 전승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으로 군사행진과 '불멸의 연대' 행진, 축하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객들과 참가자들은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문을 받게 된다.

행진이 펼쳐지는 장소 주변에 금속탐지기를 통한 검문검색의 초소가 설치된다. 검문 구역은 시립수영장 구역의 콤무니스치체스키 프로스펙트, 2호 주택가 부근 짜호오케안스카야 거리, 포베다 광장 서쪽에서 검문검색이 이뤄지며, 이외에 포베다 광장으로 가는 길은 금지된다.

포베다 광장에서 열리는 저녁 축하공연에 참석하려면 시민들은 고리키 거리를 따라 남쪽과 북쪽에서 콤무니스치체스키 프로스펙트 포베다를 거쳐 가거나 포베다 거리 서편에서 갈 수 있다. 철재 가드 라인으로 둘러싼 구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무기나 날카로운 도구, 폭죽, 에어졸 통, 인화성 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액체류나 알코올류 지참은 전반적으로 금지되고, 드론 장비를 비롯해 특수카메라와 일반 카메라 반입도 금지된다.

이날 공연 참석 시 반입 금지목록은 사할린 경찰청사이트에 게시되며, 또한 광장 진입을 위해 애완동물 동반, 자전거, 킥보드 운행도 금지되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로 유모차를 이용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은 행사에 일찍이 참석하길 권고한다. 혹시 어딘가 남겨진 물건이나 의심스러운 도구가 발견되는 즉시 주민들은 현장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하길 당부하고 있다.

### 벨리크 총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 출입국심사장 점검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 주정부 총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에 조성될 국제선 현대식 신규 출입국심사장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현대식 출입국심사장은 기존의 노후시설을 대체한다.

2023년 8월 개항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은 극동 최대 규모로서 현재 국제선으로 베이징·하얼빈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상하이·베트남 신규 노선 취항 협상 및 동남아 관광 취항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최고 국제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신규 자동셀프서비스 여권심사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도의 통제와 보안체계 구성 및 설치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률은 85%이다.

국제선 신규 출입국심사장은 올가을 본격 가동되어 시간당 600명의 탑승객들을 수용하게 된다.

## 존경하는 사할린 및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5월 9일은 우리나라가 대조국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합니다.

1945년 5월 9일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적을 궤멸시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냈고, 승리를 위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공적과 전선에서 보낸 빛바랜 군인들의 삼각 손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전쟁이 앗아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련을 이겨내시고, 불굴의 의지로 버티어 승리를 거두시며,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참전용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다시금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장병들이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후방에서 우리는 작전 지역 장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참전장병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 세대의 모범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를 단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겁니다.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분들과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전승절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전승절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참전용사들, 집 근처에서 개별적 행진

대조국전쟁 81주년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참전용사들을 위한 개별적 행진이 진행됐다. 대해 동부군관구 제68방위군단 장병들과 자원봉사자, 사회활동가들이 참전용사들의 집 부근에서 소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소규모 군사 행렬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참전용사 99세의 왜체슬라브 와실리에위츠 가브리로브와 5월 9일에 96세를 맞는 와실리 니콜라에위츠 안드레예브를 위해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부지사 대행 알렉세이 크루치닌이 개별적으로 두 참전용사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서 살며 일하고, 여기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전용사분들의 장수와 건강과 번영을 주 정부를 대표해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정부는 후손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체감되도록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참전용사의 공적을 기리며 참전용사들의 집 앞마당에서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명예 방위병들의 축하행진이 진행됐고, 현대 민요양상블 '루스키 쩌렘'이 전쟁 시절의 노래를 불렀다.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와실리 안드레예브는 "우리를 잊지 않아주어서 고맙다. 5월 9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명절이다. 러시아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했다. 우리는 그런 국민이다. 힘든 시기에는 항상 뚝뚝 뭉쳤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데상트(상륙)' 군 스포츠 클럽의 학생들과 러시아 '불멸의 연대' 사할린 지부, 전 러시아 참전용사 사할린 지부 및 '승리의 자원봉사대'사회활동 대표, '통합 러시아'당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용사와 장애인 35명, '레닌그라드 봉쇄기 주민' 배지 수여자 10명,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 113명, 파시즘 수용소에 미성년이었던 수감자 33명, '전쟁기의 아이들' 1만 400명 이상이 살고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이들에게 전승절 81주년을 맞아 지역예산에서 일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참전용사들과 참전 장애인들에게는 7만 5,000 루블리르, 레닌그라드 봉쇄기 주민,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 나치 포로수용소 미성년 수감자들, '전쟁의 아이들'에게 5,000 루블리의 일시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날을 맞아 이 범주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도 일시보조금을 지급한다.

2025년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사할린 주지사의 주도로 사할린주의 법이 개정되어 '사할린주 명예국민'칭호를 대조국전쟁 모든 참전자들에게 순번이나 할당량과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5월 9일은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의 날

승리의 날 맞아 월고그라드 국립사회교육대학교의 알리나 다니엘란의 연구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조국전쟁 당시 소련 고려인들의 역할과 운명을 조명한다. 특히 탄압과 제약 속에서도 소련 고려인들이 애국심을 지키며 대조국전쟁 승리에 실질적인 공헌을 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

편집부

## 위대한 조국전쟁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속 소련의 고려인들

위대한 조국전쟁은 모든 민족의 삶에 스며들어 비극적인 흔적을 남긴 사건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모든 소련 인민의 영웅적인 노력과 자기희생, 그리고 애국적 단결 덕분에 가능했다.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들 또한 위대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1937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 고려인들은 억압받는 민족으로 분류되어 현역 입대가 금지되었다. 그들 중에는 숙련된 군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조치였다. 사실 고려인들은 이미 내전 당시 붉은 군대(적위대)의 빨치산 부대에 합류하여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연해주와 아무르강 유역 등지에서 36개의 고려인 빨치산 부대가 활동했으며, 그 인원은 약 3,700명에 달했다. 흥분도, 오하목, 한창길, 이준규 등 부대 지휘관들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20~30년대에 소련 고려인들은 전국 여러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들 중 전문장교 계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37년 강제이주와 함께 이 중 상당수가 탄압을 받았다. 지휘관급과 일반 병사를 포함하여 최소 145명의 고려인 군인이 탄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후 고려인들은 지정된 거주지에 공식적으로 배치되었으며, 특별한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 고려인들은 이른바 '노동군'이라 불리는 건설 및 작업 부대로 징집되었다. 1942년 10월 14일 국방위원회는 '산업 및 철도, 기업체 건설작업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의 병역 의무자를 동원함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해 법령에 따라 19세에서 50세 사이의 병역 의무자 중 35만 명을 동원할 예정이었다. 해당 법령 제1조에는 '징집 연령대의 모든 고려인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별도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인 남성들은 우파, 우흐타, 스웨르들로브스크를 비롯한 소련 전역의 여러 도시로 보내져 광산 및 벌목 현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이러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려인, 특히 징집 연령대의 청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선으로 나가기를 갈망했다. 이는 당시 고려인 청년들이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수많은 탄원서를 통해 현역 군 입대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대부분 거절당했으나, 노동군에서 탈출하여 전선으로 향한 사례들도 있다. 일례로 1941년 세웨로

드윈스크 인근 벌목장에서 노동군으로 복무하던 차가이 그리고리 콘스탄찌노비치는 전선으로 가기 위해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고리키시에 도착한 그는 공장노동자로 취업한 뒤,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전선으로 나가는 데 성공했다.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에서 싸운 소련 고려인은 최소 372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195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으며, 127명이 살아서 돌아왔다.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고려인들은 현역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이름과 국적을 바꾸기도 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방어전에 21명, 쿠르스크 전투에 8명, 베를린 함락 작전에 11명의 고려인이 참전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양측의 총인명 손실 규모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투에는 다음과 같은 16명의 고려인이 참전했다.

**찌(지) 니콜라이 야코블레위츠 중위:** 1940년 10월부터 제216포병연대 포대장으로 복무했다. 1941년 11월부터 제41예비소총여단 소속 제9예비포병연대 소총대대의 부사령관을 맡았으며, 1942년 1월부터 서부전선 제50군 산하 제116보병사단 제246대전차구축대대 부대대장

을, 동년 7월부터는 대대장을 역임했다. 1942년 9월 5일 스탈린그라드 인근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스탈린그라드주 고로디셴스크 구역 사모팔로브카 마을에 안장되었다. '전투 공로 메달'(1942년)과 '노동적군 20주년 기념 메달'을 수여받았다.

**텐(정) 이완 와실리에위츠 중위:** 남서부전선 제5기계화군단의 제45기계화여단 대전차총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1942년 12월 29일 스탈린그라드 인근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스탈린그라드주 체르니시코브역 근처에 안장되었다.

**판 베르남(장별남) 중위:** 동강 유역 전선 제64군 산하 제29보병사단(제2편성) 독립 교육 건설대대 생도였다. 1943년 1월 25일 스탈린그라드 근교에서 전개된 '우란' 작전 도중 전사해 스탈린그라드주 사도위에 마을에 안장되었다.

**최 포트르 니콜라에위츠 중위:** 관련 자료 기밀.

**김 웨니아민 아르센찌에위츠 공군 상사:** 1942년 6월 스탈린그라드 인근 전투 중 행방불명되었다.

**김정곤 중사:** 제65소총여단 부대장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다. 1943년 3월 중상을 입고 같은 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했다. '2급 조국전쟁 훈장'(1985년)을 수훈했으며, 전후 치르치크 건설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김 블라디미르 알렉세에위츠 남서부전선군 방공 근위대 하사:** 스탈린그라드 전투 참전용사. 로스토브, 하리코브, 키예브, 드рого비치, 크라코브 해방작전과 브레슬라우 함락작전에 참여했다. 스탈린그라드, 키예브, 드рого비치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브레슬라우 인근에서 뇌진탕을 겪었다. 승전 후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반데라 부대 소탕 작전에 참여했으며, 리비우에서 열린 해방군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2급 조국전쟁 훈장'(1985년), '용맹 메달', '전투 공로 메달', '1941-1945 대조국전쟁 승리 기념 메달', '노동 베테랑 메달' 등을 수훈했다. 1947년 제대했다.

**헤 이남(허이남) 적위대 근위 병사:**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선 제41근위소총사단 제126근위소총연대의 120mm 박격포 포대 통신병으로 복무했다. 1943년에는 제5근위대 월호브 차량화소총여단 제24근위전차연대의 취사병으로 복무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인근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돈바스 해방 공로로 '전투 공로 메달'(1943년)을 수훈했다.

**김 알렉세이 드미트리예위츠 적위대 병사:** '붉은 별 훈장'과 '1941-1945 대조국전쟁 독일에 대한 승리 기념 메달'을 수훈했다.

**김 드미트리 적위대 병사:** 스탈린그라드 전투 참전자로, 1943년 3월에 행방불명되었다

## 이 모 저 모

### 사할린의 농업과 대학생들, 신경분석 통해 자신의 실력 향상

사할린 농산업기계화기술학교에서 <일하는 청년>이란 대규모 진로지도 행사가 개최되어 그들의 강의실은 잠시 자신의 까칠하고도 포근한 습성을 드러내기 위한 놀이마당으로 변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를 위한 지적훈련에서부터 신경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미래 전문가들이 IT, 의료, 건설, 창조산업 분야의 실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대규모 진로지도 게임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열정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오스트로와'센터에서 상품을 수여했다.

'오스트로와' 진로지도센터의 책임자 이렌 울리히나는 "오늘날 농산업은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다. 농산업단지에서 직종은 향후 전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전문성의 성장을 위한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년> 기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오스트로와>(러시아 청년사업청 기획) 전문성 개발센터가 주관했다.

###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аграрии прошли нейропрофилирование и прокачали свои навыки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МСХ) прошел масштабный день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Молодежь в деле». Студенты на время сменили привычные аудитории на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чтобы выявить свои «жесткие» и «мягкие» навык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центра «Острова».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о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разминки для ума до нейропрофилировани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оказалась больша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ая

игра, где бу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талкивались с реальными вызовами из мира IT, медицин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Самые энергичны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от центра «Острова».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сегодня — одна из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фер. Мы показали ребятам, что профессии в АПК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естижно, но и дает огромный простор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центра «Острова» Ирэн Умрихина.

Проект «Молодежь в деле» организован центр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проект Росмолодеж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ативой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 쿠릴열도에서 서핑을 위한 새로운 장소 18곳 발견

'탐험가들은 보라'기획팀이 쿠릴열도 무인 해변가에서 처음 서핑 탐사를 실시한 가운데 18곳의 새로운 서핑 명소를 발견했다. 기획팀은 '아이언 레이디(iron lady)' 모터 요트를 타고 숨쉬섬에서 쿠나쉬르 섬까지 돌아보고 왔다.

조사팀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 12개 구역에서 파도를 시험하고, 예전에는 서핑 해역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해안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각 구역들의 해안의 유형, 파도의 특성, 조석현상과 바람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지리학자 이리나 사유티나는 이 기획의 설계자로서 모든 수집된 자료들을 극동지역의 서퍼들, 요트 애호가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히고, 올 여름부터 새로이 발견된 서핑 구역의 섬들과 발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집된 정보자료들은 현재 기획팀이 준비하고 있는 통합 지도에 포함되며, 이 지도에 서핑스포츠를 비롯해 프리다이빙 같은 다른 활동이 가능한 구역들도 포함시킬 예정이고, 2026

년 봄과 가을에는 새로운 탐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기획팀은 '월니 포브슈두(곳곳의 파도)'기획팀과 공동으로 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제작자는 탐험 경로와 해양환경의 조건, 서핑 및 요트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장소 탐색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2026년 가을에 상영할 예정으로 이미 예고편이 공개되었다.

### На Курилах нашли 18 новых мест для серфинга

Команда проекта «Смотри экспедиции» провела первую серф-экспедицию вдоль необитаемой части Большо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и открыла 18 новых локаций для катания на волнах.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маршрут от острова Шумшу до Кунашира и обратно на моторно-парусной яхте «Айрон Лев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отестировали волны на 12 участках при разной погоде и собрали данные о прибреж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не изучал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ерфинга. По каждому месту команда готовит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тип берега, характер волн, влияние приливов и ветра.

Основатель проекта, географ Ирина Сают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се материалы передадут профильным сообществам — серферам и яхтсмен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же этим летом информацию начнут публиковать в соцсетях с привязкой к конкретным островам и историям их открытия. Собранные данные войдут в единый атлас,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готовит команда. В него включат не только серф-споты, но и локации для других активностей, например фридайвинга. Новые экспедиции уже планируют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2026 года. Параллельно команда готовит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путешестви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оектом «Волны повсюду». Авторы покажут путь экспедиции, условия открытого океана и процесс поиска новых мест для катания. Премьеру запланировали на осень 2026 года, а трейлер уже доступен зрителям.

(8면에 계속)

# '전설의 탄생'... '에트노스' 한민족예술과 30주년 기념 공연 성료



지난 6일(수) 저녁 7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 영화공연장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창설 3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에트노스'는 이번에도 <전설의 탄생>이라는 멋진 공연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한민족예술과는 세상을 지키는 네 수호자 - 백호, 현무, 청룡, 주작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용, 노래, 음악, 가야금, 북 등 공연을 선보였다. 전설을 러시아어 더빙 영상으로 들려주고 한국어 자막이 나왔다.

약 한 시간 정도 빈틈없이 이어진

공연은 인상적이었다. 전설 속 백호는 서쪽, 현무는 북쪽, 청룡은 동쪽, 주작은 남쪽을 지키며 혼돈과 불의로부터 세상을 지켰다. 세상의 균형이 깨지자 이들은 오직 함께할 때만 어둠을 막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땅의 힘, 물의 지혜, 공기의 자유, 불의 열정을 하나로 합쳐 강력한 방패를 형성했다.

이 내용을 잘 전달한 한민족예술과 학생들과 교사진은 이날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무용, 현대적인 춤과 리듬이 잘 어우러졌다.

"공연 내내 숨도 쉬지 못할 정도

였어요. 북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과 자부심을 느껴서 흘렸습니다. 우리 한민족 문화를 보급하고 잘 소개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무대 뒤에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감독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한 관객이 소감을 나누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리국 이리나 게라시모와 국장은 축하사에서 "러시아가 한민족 문화예술을 사할린에서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어 "학생들의 공연이었음에도 매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단의 공연이었다. 한민족예술과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번 무대는 한민족예술과의 신율리아 과장과 김 예브게니야, 체오 나탈리아, 최경순, 김완순, 김 안나, 강 안나, 미야타 미순 교사가 준비했다.

6일 공연을 보지 못한 분들은 5월 12일 공연을 볼 기회가 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남 알렉산드르 와실리에위츠 적위대 병사:** 스탈린그라드 전선 제64군 산하 제131 립사 적위대 소총사단소총수로 복무했다. 1942년 12월부터 1943년 3월 사이 스탈린그라드 전선에서 행방불명되었다.

**박 미하일-야코브 이오시 포위츠 중사:** 스탈린그라드 전선 제62군 산하 제196소총사단 제725포병연대의 분대장으로 복무했다. 1942년 8월 24일 스탈린그라드 인근에서 행방불명되었다.

**박 한운 적위대 병사:** 스탈린그라드 전선 제21군 산하 제304 소총사단의 박격포병으로 복무했다. 1942년 8월 24일에 행방불명되었다.

**텐(정) 아나톨리 적위대 병사:** 1942년 1월부터 레닌그라드 전선에서 전투, 5월부터 스탈린그라드 전선에서 전투, 이후 제3발틱해 전선(1943년 5월 12일)으로, 제2발틱 전선(1943년 5월 30일)으로, 다시 레닌그라드 전선(1943년 6월)으로, 제3발틱 전선(1943년 7월), 제2벨라루스 전선(1944년 9월) 등 여러 전선을 누비며 전투했다. '1급 조국전쟁 훈장'(1985년), '용맹 메달'(1945년), '레닌그라드 방어 메달'(1943년), '1941-1945 대조국전쟁 독일 승리 기념 메달' 등을 수훈했다.

**김 미하일 아나톨리에위츠 적위대 병사:** 스탈린그라드 전선 제64군 산하 제138 적위대 소총사단 제650소총연대의 통신병으로 복무했다. 1942년 11월 2일 전투 중 전사했으며, 스탈린그라드시 '바리카디' 공장 부지 내 '류드니코

브 섬'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이름은 월고그라드 마마예브 쿠르간의 군사 영광의 전당 전사자 명단(기호 28호, 95행, 2열)과 우수리이스크 승리 광장에 세워진 위대한 조국전쟁 전사자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1937년 강제이주와 탄압, 친척들의 체포라는 시련 속에서도 소련 고려인들은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대중적 영웅주의의 모범이 되었다. 다른 모든 소련 인민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들에게도 위대한 조국전쟁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생존의 문제였으며, 승리를 위해 자신의 힘과 수단,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에 참전한 소련 고려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군사 기록 보관소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 발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리나 다니엘란 월고그라드국립사회교육대학교 (러시아의 한국어: 방향과 발전. 2023년 제4권 3호)**

**참고문헌**  
한 왈레리 세르게예위츠, 심홍용 공저. 중앙아시아 고려인: 과거와 현재.

아끼예와 에스.이.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탄압 민족 대표들: 연대기.

인민의 기억 1941-1945. [전자 자료]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에서의 소련의 고려인들 1941-1945. / 기획 신 드미트리.

## 2026 사할린동포 법률지원사업 안내 전국 25 지역 법률상담 진행

재외동포청이 주관하고 법무법인 덕수가 수행하는 '2026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KIN(지구촌동포연대)는 공동PM(프로그램매니저)으로 3년째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찾아가는 법률상담: 부산 기장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조영관,이영규 변호사가 참여하고, 김주연, 민지홍, 최희성 행정사도 지원팀에 함께하며, 통역으로는 사할린 동포인 서드미트리, 백봉순 두 분이 함께 한다.

사할린동포 법률지원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들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안전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 전국 25개 지역 찾아가는 법률상담, ▲ 법률 및 행정지원, ▲ 관련 제도 설명회 3회가 실시된다.

변호사, 행정사, 통역사가 사할린동포 최다 거주지역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서천, 경남 김해까지 사할린동포 거주지역을 모두 찾아 법률상담 및 지원을 한다. 러시아 서류와 한국의 인적사항 불일치 등에 따른 '동일인확인서' 공증,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친생자관계확인)', 그리고 '성·본 변경' 등 실질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대리하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변호사 및 행정사 대리 비용은 재외동포청에서 전액 지원한다(단, 법원 서류 접수 비용 등은 개인 부담) 또한,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왓츠앱(WhatsApp) 오픈채팅방으로 비대면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법률지원팀 관계자는 "오랜 기간 타국에서, 그리고 귀환 후에도 각종 법적·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온 사할린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권리의 회복 과정"이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대리 지원을 바탕으로 동포들의 일상 속 인권이 든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연계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신청 및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왓츠앱 오픈채팅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문의 및 상담 접수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  
(010-8149-2643)

왓츠앱 오픈채팅방



What's APP

(KIN 제공)

## 중국 의료진, 사할린에서 독특한 건강요법 발표

헤이허시 중국 전통의학병원의 대표단이 사할린의 의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헤이허시 중국 전통의학병원과 태평양 국립의과대학과 체결된 협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양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과 실질적 보건을 다루는 광범위한 경험의 교류가 조성됐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중의학(중국 전통의학) 의료진의 방문은 '아빌림 픽(장애인 기능올림픽)' 지역 선수권대회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중의학 전문가들은 장애인 치료전문가들이 경연을 치르는 '마사지 치료사' 달인 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했다. 중의학 대표단의 참여로 대회는 국제적인 위상을 얻었고, 동양 표준 마사지 치료사들의 훈련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전문적인 참가자들과 대화의 장이 사할린 의과전문대학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기서 중의학 대표단은 중국에서 수세기 동안 효과를 입증한 건강회복의 방법론을 소개했다.

응용치료기술에 특별히 중점을 둔 중의학 대표단은 '시네고르스크 광천수'휴양소를 방문해 영양원 직원을 위한 교육, 환자들 대상 치료마사지 시간, 재활 중인 운동 선수들을 위한 재활시술 등을 진행했다.

헤이허 시병원의 두만위 대표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입증된 중국 전통의학의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중국 의료진은 사할린주 재활기관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전문 의료진들의 정기적 교류를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шествии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81-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акции в регионе стан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8:00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10:00 здесь начнется парад, а следом за ним по площади пройдет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Колонна двинется по улице Алексея Максимовича Горького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роспекту до Хоккайдо-центра. Волонтеры будут помогать участникам шествия от начала сбора до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лонны и во время движения.

Для тех, кто не смож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колонне лично, предусмотр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онлайн — достаточно загрузить фотографию и историю героя на офи-

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оек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участников о правил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рещено приносить аэрозольные баллончики, огнеопасные и пиротехнические вещества, легковоспламеняющиеся жидкости и 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Запреще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фото- и видеосъемки, запрет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Полный список запрещенных предметов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смысл которого —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людях,

составивших Победу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комендуют приходить всей семьей.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акции — портрет ветерана в руках его потомков и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Это может быть фронтовик, труженик тыла, блокадник, ребенок войны, узник концлагеря, подпольщик или партизан.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9 мая -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аботу Алины Даниелян, студентки Волго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ци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АННОТАЦИЯ

Кровопролитная война перевернула жизнь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Для всех слоев общества, для всех наций и народностей, для каждого гражданина она стала поистине Отечественной, священной. Война потребовала напряжения всех сил и ресурсов страны, подвергла жесточайшей проверке сознание народа. На основе литературных данных и архи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о участ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е. Автор акцентирует внимание на трудности в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яды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депортацию 1937 года и репрессии, жертвами которых стал данный народ, они стремились,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попасть на фронт, показывая пример мужества и героизма всему миру. В статье также приведены заслуги отдельны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е. Данная тема мало изучена и требует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е имена корейцев, сведения об их боевых подвигах,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Е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 это то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вошло в жизнь каждой нации, оставив свой трагический отпечаток на судьбу каждого народа. Победа в этой войн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благодаря героическим усилиям,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ю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единению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Свой посильный вклад в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внес каждый народ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том числе 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1937 года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м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епрессированного народа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вступать в ряды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 хотя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опытные военные. Стоит сказать, что еще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рядах красных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действовали 36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в рядах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коло 3 700 человек.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командиров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Хон Бом До, О Ха Мук, Хан Чан Гер, Ли Дюн Гю и др.

В 1920-30 г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ходили учебу в различных военных училищах страны, что обусловило появление среди них прослой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ых офицеров РККА. Однако вместе с депортацией 1937 г. многие из них бы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ы. Известно как минимум о 145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мначсостава и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ы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закреплены в местах по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им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покидать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По этим причинам в период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орейцы набирались в строительные и рабочие колонны, в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ГКО от 14 октября 1942 г. «О мобилизации в Узбекской, Казахской, Киргизской, Таджикской и Туркменской ССР военнообязанных для работы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сь мобилизация 350 тыс. человек из числа военнообязанных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50 лет.

И отдельной строкой в пункте 1 записано: «В том числе мобилизовать всех корейцев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Корейцы-мужчины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для работы на шахтах,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в Уфу, Ухту, Свердловск,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х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1, С. 75].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я,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особенно лица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стремились,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попасть на фронт. Об этом говоря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поданные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ью в военкоматы с просьбами о зачислении их добровольно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в чем, правда, им отказывали. Известны случаи бегства корейцев из трудовой армии на фронт. Например, в 1941 г. Григор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Чагай, призванный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и работавший на лесоповале под Северодвинском, трижды убежал на фронт. Дважды неудачно, с третьей попытки добрался до г. Горького и устроился рабочим на завод, оттуда ушел на фронт [2, С. 172-173].

Всего известно, как минимум, о 372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сражавшихся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з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воинов-корейцев, погибли и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195 человек. Вернулись живыми 127 человек. Судьбы остальных остаются пока неизвестными [4].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пасть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меняли свои имена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По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данным, в обороне Ленинград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21 кореец. В битве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сражались 8 корейцев. В штурме Берлина участвовали 11 корейцев.

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ста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ожесточенных и кровопролитных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 количеству суммарных безвозвратных потерь воевавших сторон.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 корейцев:

**Лейтенант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Ти.** С октября 1940 г. — командир батареи 216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лка. С ноября 1941 г. — адъютант стрелкового батальона 9 запасного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лка 41 запасно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С января 1942 г. — заместитель командира, с июля 1942 г. — командир 246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дивизиона 116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50-й армии Западного фронта. Погиб в бою 5 сентября 1942 г.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Похоронен в п. Самофаловке Городищен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ям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1942), «XX лет РККА» [4, С. 455].

**Лейтенант 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Тэн.** Стрелок из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ружья 45 механизированной бригады 5 механизированного корпуса Юго-Западного фронта. Погиб в бою 29 декабря 1942 г.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Похоронен у ст. Чернышко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4, С. 457].

**Лейтенант Тянь Бернам,** курсант отдельного учебно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батальона 29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2-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64-й армии Донского фронта. Погиб в бою 25 января 1943 г.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в ходе операции «Уран». Похоронен в с. Садовое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4, С. 478].

**Лейтенант 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Цой,** данные засекречены.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авиации Вениамин Арсентьевич Ким.**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в боях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в июне 1942 г. [4, С. 142].

**Сержант Ким Чон Гон, командир отделения 65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Участник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В марте 1943 г. тяжело ранен. В июне 1943 г. демобилизован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 (1985). После войны окончил Чирчикский строительный техникум [4, С. 257].

**Гвардии младший сержант войск ПВО Юго-Западного фронта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Ким.** Участник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Ростова, Харькова, Киева, Дрогобыча, Кракова, взятии Брестлау. Ранен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Киевом, Дрогобычем, контужен под Брестлау. После Победы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ликвидации отрядов бандеровцев в Западной Украине. Участник парада воинов-освободителей во Львове.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 (1985),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Ветеран труда». Демобилизован в 1947 г. [4, С. 144].

**Гвардии красноармеец Хе Инам.** В 1942 г. — связист батареи 120-мм минометов 126 Гвардейск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41 Гвардейско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фронта. В 1943 г. — повар 24 Гвардейского танкового полка 5 Гвардейской Волховско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Ранен в 1942 г.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ью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1943)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Донбасса [4, С. 531].

**Красноармеец Алексей Дмитриевич Ким.**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медаль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3].

**Красноармеец Дмитрий Ким.** Участник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в марте 1943 г. [4, С. 156].

**Красноармеец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Нам.** Стрелок 131 стрелковой Ропшинск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дивизии 64-й арм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фронта.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н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м фронте с декабря 1942 г. по март 1943 г. [4, С. 325].

**Сержант Михаил-Яков Иосифович Пак.** Командир отделения 725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лка 196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62-й арм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фронта.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в 1942 г. под Сталинградом [4, С. 382].

**Красноармеец Пак Ханун.** Минометчик 304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21-й арм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фронта.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24 августа 1942 г. [4, С. 407].

**Красноармеец Анатолий Тен.** С января 1942 г. воевал в составе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с мая 1942 г. —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с 12 мая 1943 г. — 3-го Прибалтийского, с 30 мая 1943 г. — 2-го Прибалтийского, с июня 1943 г. —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с июля 1943 г. — 3-го Прибалтийского, с сентября 1944 г. — 2-го Белорусского фронтов.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 ст. (1985),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1945), «За оборону Ленинграда» (1943),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4, С. 431].

**Красноармеец Михаил Анатольевич Ким.** Связист 650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138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64-й арм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фронта. Погиб в бою 2 ноября 1942 г. Похоронен в братской могиле на «острове Людникова» —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Баррикады» в г. Сталинграде. Его имя упоминается в списке воинов в Зале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на Мамаевом кургане в Волгограде (знамя № 28, строка № 95, столбец № 2), а также на памятнике-мемориале воинам-уссурийцам, погибши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г. Уссурийске [4, С. 176].

Несмотря на депортацию 1937 г., репрессии и арест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азывали примеры массового героизма, отважно сражаясь на фронтах. Для них, как и для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была жизненно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от успеха в котором зависела судьба страны, и потому они не щадили сил, средств и даже своих жизней ради Победы.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что участ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требует углубленного изучения и системного поиска материала в военных и других архивах.

**Алина ДАНИЕЛЯН**  
Волгогра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ци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3 г. Т.4, №3)

####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 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Сим Хон Енг. Корейц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 Акиева С.И. Они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нига-хроника
- Память народа 1941-1945 гг.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 Авт. проекта Д.В. Шин 978-5-89282-462-0.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к поэтапной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реформе

Конституция, которая не менялась почти 40 лет с 1987 года, во многом устарел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6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еобходим прак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чтобы сдел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для реформы. Было бы целесообразно вносить част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этапно, по мере соглас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озвучало за день д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о законопроекту о внесении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Поправки касаю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условий введ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й Конституции сложно в 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гарантировать нынешний уровень демократии,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будущее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Он предостерег от любых нарушений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3 июня, когда пройдут местные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 назвал клеветнические измышления, подкуп избирателей и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выборы со стороны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тремя ключев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призвал жёстк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та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 Подтверждён приезд в РК женской футбольной команды КНДР

Корейская футбо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подтвердила учас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футболисток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турнире Азиатской футбольной конфедерации (AFC). Женская футбольная команда КНДР «Нэгохян» («Моя Родина») сыграет 20 мая в Сув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 женским футбольным клубом «Сувон» в полуфинале Лиги чемпионов AFC среди женщи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ки приедут в РК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с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когда он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финале Мирового турнир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в Инчхон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е 39 человек: 27 спортсменок и 12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Команда-победитель встретится 23 мая в финале с победителем второго полуфинала, в котором сыграют команды Австралии и Японии.

## День рождения Сэчжона будет отмечен книжным фестивалем

В честь 629-й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в Центральном парк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города Сэчжона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любви к книг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15-16 мая. Его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ой станет произведение «Песни луны, сияющей на тысяче рек» (월인천강지곡) - одна из первых книг, напечат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подвижного шрифта.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контентом, объединяющим книги,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и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ёт масштабная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30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ов и издательст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стречи писателей с читателями их книг, а также выступ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на фестивале в Итал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Защитники Сеула»,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попытке введ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конце 2024 года, получил три награды на 28-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итальянском городе Удина. Наград удостоены также фильмы «Моё имя» и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телекомпании MBC «Защитники Сеула» удостоен главных призов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критиков и специальную награду для режиссёров-дебютантов. Фильм «Моё имя», детективная драма,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й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на фоне восстания 3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и историческая драма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получили третьи призы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Ежегод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фестивалей в Европе, посвящённый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му кинематографу.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ходил с 24 апреля по 2 мая. В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было приглашено 52 фильма, в том числе, ше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 Узбекистане началась эксплуатация поездов Hyundai Rotem

6 мая компания Hyundai Rotem сообщила о начале коммерческ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Поезда курсируют по маршруту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1.020 километров между Ташкентом и Хивой. Теперь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траны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добраться из столицы страны в древний город Великого шёлкового пути на западе Узбекистана за семь часов. Это вдвое быстрее, чем раньше. Запуск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стал результатом контракта на сумму 270 млрд вон (185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подписанного компанией Hyundai Rotem с Узбекскими железными дорогами в 2024 году. **RKI**

## Навеки отдельно: КНДР прописала в Конституции отказ от объединения с Югом

Пхеньян закрепил в главном законе страны отказ от намерения объединиться с Югом, определив границы территории в рамках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з текста также исчезли ряд резких формулировок по повод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еул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текст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поправки в которую были приняты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и заседания Высше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 Порознь с Югом, но без особой вражды

В среду, 6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ровело брифинг для прессы, на котором ознакомило журналистов с содержанием полного текста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Хотя поправок оказалось много и были они весьма существенным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версией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т сентября 2023 г.,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были ожидаемы.

Главным новшеством стал формализованный отказ от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упоминания особых отнош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з преамбулы и текста Конституции полностью удалены все полож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Исчезли связанные с концепцией объединения фразы типа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полуостров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Родины", "полная победа социализма" и прочее.

Территория КНДР отныне определе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рамках ее нынешней, фактической части: обозначено, что она граничит с РФ, КНР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 в южной. Вместе с тем, более детально сухопутные и морские границы не обозначены.

Обратили также внимание,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редыдущие заявл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КНДР,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обозначена как "враждеб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счезли также и воинственные идеологизированные выражения типа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е агрессоры",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угнетения", "деструктивные происки внутренних и внешних враждебных элементов" и другие.

### Ким Чен Ын ка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ажным изменением стало существенное укрепление авторитета и статуса лидера -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определен ка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з преамбулы убрано упоминание "кимирсенизма-кимчениризма", вместо которых четко изложена политика "приоритета народных масс" Ким Чен Ын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7)

## В штате посо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скве вновь появится советник по объединению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восстановить в своей дипломатии в Москве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 по вопросам объедин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упраздненную ранее в рамках оптимизации госаппарата. Решение связано с изменение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и ростом внимания Сеула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Как сообщили 30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нкурс на замещение должности начнется в начале мая.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йдет с 4 по 11 мая, после чего кандидаты пройдут этапы отбора, включая собеседование.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ять в начале июля, а новый советник должен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в августе. Срок его полномочий составит три года. Сотрудник будет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но работать будет в общей структуре посольства РК.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 по вопросам объедин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осольстве в Москве фактически перестала существова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2022 год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ее упразднении в рамках внедре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системы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штатных единиц.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предыдущего сотрудника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акансия не заполнялась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была окончательно ликвидирована.

видирована.

В Сеуле объясняют пересмотр этого решения изменившимися условия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ближением России и КНДР. Новый советник будет разъяснять властям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РФ позицию Сеула по вопросам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отслеживать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Ряд экспертов связывают возвращение должности также с надежд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то, что Россия поможет сближению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зывает КНДР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днако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на самых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включая лично Ким Чен Ына,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для КНДР отныне "просто соседняя и к тому же враждебная"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Север не хочет иметь каких-либо дел и контак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ветники по вопросам объедин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аппаратах посо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четырех странах - США, Китае, Японии и Германии. Возвращение подобного поста в Росс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Сеул вновь придает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овышенное значен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 Эксперт Кан Чжон Ук: Возвращ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СПГ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ускорится

30 апре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Инчхоне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газов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стные эксперты обсудили влияние текущ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ПГ). С ключевым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и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газа KOGAS Кан Чжон Ук. "Этот кризис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ускорит структурные изменения на рынке СПГ.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более ранн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России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СПГ", - заявил он.

По его оценке,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круг Ормузского пролива, уже приводит к сбоям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логистике. Поставки СПГ из Катара и ОАЭ затруднены, а в акватории пролива скопилось до 200 судов.

При этом, как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сдвигается структура СПГ-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ова, что даже частичная остановка мощностей способна привести к длитель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боты может занять от трех до пяти лет.

Особенно чувствительна к происходящему Азия, где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импорта СПГ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По приведенным данным, доля таких поставок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0 процентов для Индии, 33 процентов для Китая, 15 процентов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и 6 процентов для Японии.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Кан, Сеулу удалось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ближневосточных поставок: если ранее на Катар и Оман приходилось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импорта, 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ен до примерно 15 процентов за счет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Структура закупок продолжает меняться 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увеличились поставки из Малайзии, Индонезии и США, впервые начался импорт из Канады, тогда как доля Катара сократилась. Это, по оценка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зволило частично смягчить влияние нынеш-

него кризиса.

Пока реакция рынка остается умеренной: колебания цен на СПГ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20 долларов, что ниже скачков, наблюдавшихся в период конфликта вокруг Украины.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длительной блокировки Ормузского пролива последствия могут оказаться значительно серьезнее.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Кан Чжон Ук,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экспортер СПГ в мире - Катар - в текущих условиях не может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табильные поставки.

В ходе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также указали, что на фоне нарастающи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рисков приоритет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все чаще смещается в сторону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тавок.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нынешний кризис может стать фактором, способным изменить структуру глобального рынка СПГ и перераспределить роль ключевых поставщ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в пользу расширения присутствия РФ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газ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для ветера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л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арады у дома

В преддверии 81-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для ветера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л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арады. Ежегодно торжества прямо у домов освоб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уют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68-го гвардейско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олонтеры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Мини-парады посвятили двум ветерана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9-летнему Вячеславу Васильевичу Гаврилову и Василию Николаевичу Андрееву, которому 9 мая исполнится 96 лет. Ветеранов лично поздра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ручинин:

—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воспитывать здесь детей. От им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елаю вам долгих лет, здоров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Каждый из вас — наша драгоценность. И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ы чувствовали особую заботу и внимание благодарных потомков, — обратился он к ветеранам.

Отдавая честь подвигу освободителей, в их дворах торжественным маршем прошла рота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военного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Артисты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исполнили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 Спасибо, что помните о нас. 9 Мая — это особен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х. Когда бы на Россию ни нападали недруги, мы всегда побеждали. Такой мы народ —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всегда спланиваемся, — отметил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В торжествах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спитанники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Десант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х отделени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35 инвалид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0 награжденных знаком «Жителю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113 участников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33 бывши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зника фашизма, более 10,4 тысячи «детей вой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м обеспечены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уроченные к празднованию 81-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Для инвалид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ил 75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блокадников,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и бывших узников концлагерей — 5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детей войны» — 5 тысяч рублей. Ко Дн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3 сентября, все перечисленные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Напомним, в 2025 году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обеды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и приняты измен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закон,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вне очереди и квоты присвоить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новыми проводниками здоровья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персональ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торами,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и готовы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Они будут заботиться о пациентах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был запущен в 2023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чтобы медпомощь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ни помогают записаться к доктору,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Но зачастую пациентам важнее то, что проводники дарят им персон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и заботу.

—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на любой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медицина была темой номер один. Сегодня острота проблемы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ась. И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стал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больше не приходится брать баррикады, чтобы попаст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 как связующий мост между пациентами, главными врачами и минздравом — они могут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закрыть любой вопрос,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 три года больш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пробовали себя в роли персональных помощников, но не все справились с этой ответ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Сейчас вместе с новобранцами в регионе 630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Под их крылом — 15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 Эта работа подойдет не каждому. Требуются эмпатия, сострадание, стрессоустойчивость. В проводники следует идти не с целью заработка, а с желанием помогать людям. У многих моих близких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Я хочу заботиться о других, а кто-то будет заботиться о моей семье и обо мне. Это как цепочка добра, — поделилась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Валерия Ка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явились также проводники счастья — они сопровождают женщин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беременности, начиная с первого визита к акушеру-гинекологу и заканчивая родами. 15 персональных помощников заботятся более чем о 1600 женщинах. Некоторые пер-

с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имеют специаль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и консультируют подопечных о процедуре ЭКО.

— Я сама — мама двоих детей, поэтому хочу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проводника счастья. Для меня это бу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работой. На основной — я тоже много общаюсь с людьми. Поэтому с радостью реализую эти навыки в новой сфере. Надеюсь, что смогу быть полезна будущим мамочкам на пути к рождению малыша, — рассказала проводник счастья Екатерина Гущина.

Отметим, в 2025 году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звало сахалинскую медицину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оступных в стране. Такая высокая оценка получена на основании опросов самих пациентов. С 2018 года уров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вырос с 35 до 63 процентов.

## Ден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островах отметили фестивалем «Этномир Сахалина»

30 апрел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прошел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Этномир Сахали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в череде торжеств,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Дн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бытие организовал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и зрителям фестиваля обратилс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ручинин:

— В 2025 году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учредил две новые памятные даты. Первый праздник, Ден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ы впервые отмечаем сегодня. А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8 сентября празднуется и День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ие решения — это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ов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ются абсолют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В нашей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47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живет, работает и сохраняет культур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ибир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роды нашей страны говорят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проповедают разные религии и имеют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они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ют искреннюю дружбу. Это делает Россию абсолютно непобедимой и способной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любые трудности. Всем народам — и коренн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и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им, желаю процветания и удач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и то, что Ден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впервые отмечается в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хранились четыре коренных народа. Древнейший из них — нивхи, их история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12 тысячелетий. Самый малочисленный — уйльта. Их всего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они проживают только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мерам господдержк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носов, получая квоты, круглогодично могут рыбачить и охотиться на морского зверя. Развивается северное домашнее оленеводство: пастухам строится жилье в местах выпаса, их обеспечивают питанием и теплой одеждой,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убсидии на содержание поголовья.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регионе не снижается, 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даже немног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права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Лиманзо.

Госте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корпора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Олег Ткаченко, отметив многолетню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компании принципам со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бережно хранимые и передаваемые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сокровище, которое делает Сахалин особенным, — сказал он.

Объединяющим символ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Отец-Сахалин» — собирательный образ коренны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Арт-объект покровителю островной земли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нтябре 2025 года.

На трех этажах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для гостей работала этно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иртуальная 3D-экспозиция, фотозона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проходит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зрителей выступили этно-фолк группы «Лер миф»,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Люди Ых миф» и студия «ТеатрЛ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самбли «Ари ла миф» из Ноглики, «Мэнгумэ илга» из Поронайска, а также ансамбль «Эрку» из Хабаровск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прошла премьер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1709». Ранее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составе режиссера Александра Ли, помощника режиссера Ольги Хурьюн и оператора Виктора Кима провела творческую экспедицию по Сахалину. Маршрут охватил

Поронайск, Чир-Унвд, Ноглики, Некрасовку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пеци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краеведческ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сервиса, Объединение модных индустрий, а также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ванториум» гимназии № 3.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Кубка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верши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мплексный физкультурный турнир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филиал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рове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Участие в них приняли более 160 ветеран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из 16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Они померились силами в семи дисциплинах: волейболе сидя,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спортивном метании ножа, пауэрлифтинге и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а также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для слепых.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обрат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ручинин.

— Настоящий боец остаётся им до конца. И вы своим примером это доказываете уже здесь, в мирной жизни. Не сидите сложа руки. Не заклимайтесь на своём боевом прошлом, а работаете, учитесь, развиваетесь.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есь спортом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что и доказал прошедший «Кубок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подаёте пример нам,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Отрадно, что в этом чемпиона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аши семьи, а также впервые и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Все мы — одна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играет за нашу страну, за Россию. От им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блестящим проведени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От себя добавлю: этот турнир является по-настоящему уникальным — победители в нем точно есть, а проигравших нет,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Кручинин.

— Я уверен,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ъединяют сердца сахалинцев и всех россиян, делая нас с вами сильнее, а Россию непобедимой, —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казал глава минспорта региона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завершением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Продолжайте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и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Увидимся с вами на следующ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убка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Спортсмены — участники Кубка отмети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мнению ветеранов,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для них —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 Это мой третий Кубок. Турнир очень нас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Мы видим новые лица боевых братьев. Мы общаемся и знакомимся. Совместно организуем выезды и неформальные встречи. Мы вместе тренируемся. Наши команды пополняются сильными игроками. Это лучшая социализация и адаптация к мирной жизн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ёт конкуренция и соперничество. И та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нас еще больше стимулирует,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соревнований Александр Кан.

Михаил Моляков приехал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из Корсакова. Ветеран выступил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видах спорта.

— Я выбрал пауэрлифтинг и стрельбу из пневматической винтовки. В пауэрлифтинге отлично справился с задачей, выложился по максимуму. У меня было три подхода. Первый заявленный вес составил 132,5 кг. Второй подход был на 140 кг. Третий заявленный вес составил 145 кг, — рассказал спортсмен. — Мы — коллектив ветеранов. А коллектив всегда должен быть вместе, в едином кулаке.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 правильное дело. Каждый ветеран должен чувствовать свою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для общества и Родины.

Также в Куб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из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реди них бронзу получила Екатерина Сафронова. Серебро забрала Юлия Фролова.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Людмила Пшеничникова.

— Накал страстей на площадках был просто невероятным. Эти дни стали для нас праздником мужества, несгибаемой воли и единства, — подчеркну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фили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абина Кушев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ое комплексн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убок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а СВО в регион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оказываются всесторонн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동포의 창] "귀환 사할린 동포 세대별 차등지원 정책 필요"

## 재외한인학회 학술세미나...

###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통합책 필요"



재외한인학회 세미나서 귀환 사할린동포 사회통합 논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한인학회가 23일 삼육대에서 '포용적 귀환 동포 정책과 동포청년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귀환 사할린동포 사회통합에 대해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26.4.24. wakaru@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내로 재이주한 귀환 사할린 동포 정책은 영주귀국자인 1세대와 자손인 2~3세대를 구분한 세대별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 안병삼) 주최로 24일 삼육대에서 열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귀환 사할린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 수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세대는 의료·주거·돌봄·사회보장 등 복지 안정과 존엄한 노후 보장이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반면에 2·3세대에게는 노동시장 진입,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국적 및 체류지위 안정과 같은 시민적 자립 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25년 10월부터 3개월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를 비롯해 2·3세 3천355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관련 지수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자격은 95.6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 74점, 건강 6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 교육은 30.5점, 경제는 25.3점으로 낮게 나왔다.

윤 교수는 "사할린 동포의 체계 통합은 법적 지위와 주거 안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적 자립과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훈련 참여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그는 ▲ 사회 관계적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 시행 ▲ 젊은 세대와 후속 세대를 위한 정체성·심리통합 지원 ▲ 정기 실태조사와 정책평가 제도 정착 ▲ 초국가적 연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세대별 귀환 동기와 사회통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방일권 한국외대 교수는 "1세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다가 냉전 시대 버려지다시피 방기됐던 경험으로부터 영주귀국 동기가 '역사적 정의의 실현과 권리로서의 귀환'이라고 소개했다.

방 교수는 "그러나 2세대는 고령인 1세대 부모를 돌보는 효행을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사할린에 두고 건너온 '희생적 이민' 성격이 강하고, 3세대는 조국적 정체성의 재구성고 실리적 생존이 이주의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할린 동포 정책을 '1세대 중심의 시혜'에서 '후속 세대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단선적 전환보다는 역사적 책임 이행이라는 원칙 위에서 세대별 다른 정책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귀환 사할린 동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관리해 이방인 취급하는 정책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봉수 한국이주노동정책연구원장은 귀환을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이주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객재석 한국이주노동정책연구원장은 "1세대에게는 '존엄한 돌봄'을 2·3세대에게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

해외유학을 준비 중인 L씨는 앞서 유학을 다녀온 선배의 조언에 따라 출국 전 알뜰폰을 새로 개통했다. 국내 휴대전화 없으면 해외에서 공공웹사이트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L씨는 사용하던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국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 >>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 끝, 해외 번호로 즉시 인증

그동안 전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국내 통신사로만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도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되어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 정부24 등 공공 사이트 이용 방법 간소화

사용 방법도 매우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Навеки отдельно: КНДР прописала в Конституции отказ от объединения с Юго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5)

Впервые указано право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на командование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также введен пункт об основании для делегирования полномочий; обозначено полномоч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назнача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НС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а также удалено право председателя ВНС отозва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что фактически демонтировало номинальный механизм сдержек и противовесов.

Среди прочих новшеств - исключены ранее характерны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формулировки типа "бесплатное медобеспечение", "страна без налогов", "страна, где отсутствует безработица".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ов особой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также упомянуты бойцы КНДР, принимавшие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РФ от ВСУ - "участники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за рубежом-пламенные павшие патриоты".

## В Сеуле вздохнули с облегчением и сожалением

В соседней Южной Корее эксперты, безусловно, с большим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появления полного текста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и изучили его тщательно и досконально. Как мы уже говорили, закрепление раздела на Север-Юг было ожидаемым, а потому не стало сенсацией, хотя, конечно, чувства горечи и определенного сожалени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у

многих южан хватае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в конце 2023 г. Ким Чен Ына о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а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вши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этой позиции, все было ожидаемо.

На Юге, впрочем, удивлены потенциально неконфликтным характером формулировок в отношении РК. В частности, в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нет упоминания единственной реально спорной зоны - акватории в Желтом море, в районе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Северной разделительной линии. Ранее т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исходили столкнов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Юг также не стали называть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хотя тот же Ким Чен Ын и его ведущие помощники делали это неоднократн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звана по ее официальному, принятому именно на Юге имени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счезли и иные воинственные обороты. Это позволило специалистам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НДР решила не брать курс на конфликт с Сеулом, а отношения теперь - в рамках строго отдельных, соседни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х ничего не связывает, кроме общей границы.

Укрепление и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Ким Чен Ына, озвученной им идеологии говорит о замене предыдущих установок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Это не отказ, не какой-то разворот, а скорее дань времени и признание того, что теперь приоритетны тезисы нового лидера, отражающие

новые реалии ситуации.

Иные поправки в целом работают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а КНДР как "нормальной страны"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онституцией и системой власти.

## Что теперь делать Южной Корее?

На этом фоне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указывают, что теперь у них Конституция и многие положения выглядят особенно "странноватыми" на фоне "нормализованных" формулировок нового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официально территория страны определена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включая, получается, КНДР.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сих официально действуют и назначаются президентом "губернаторы пяти северных провинций", то есть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а. Чиновники имеют статус замминистров, у них есть свой аппарат помощников, им платят зарплату. Также в официальном обороте РК избег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то название для КНДР, который Пхеньян принял для себя -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Отдельно стоит вопрос объединения, учитывая, что КНДР теперь считает себя просто "посторонней страной" и другой нацией для Юга. Это, мягко говоря, сильно затрудняет все разговоры о брат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единой нации и прочего, не смотря на общую историю.

В этой связи в Южной Корее громче стали призывы соответ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реагировать, удалив хотя бы абсолютно устаревшие подходы.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лагают начать назыв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 ее официальному имени, перестать претендовать - хотя бы формально -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а такж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ерестать тратить госсредства на абсолютно абсурдные должности, типа губернаторов провинций Севера.

Вопрос об отказе от объединения на Юге вряд ли пока смогут решить так же радикально, как это сделал Ким Чен Ын. Безусловно,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нимают, что КНДР - отдельная, другая страна, там свой строй, особенности, даже язык уже стал отличаться, 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фициально, пусть в качестве какой-то далекой цели - на это в Сеуле пока не готовы пой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пришло к в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с задачей улучш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одвигаться на пути к объединению, а потому "наступить на горло собственной песни" очень сложно. Хотя, судя по опросам, все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молодых, считают КНДР другой страной и сомневаются в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даже в принципе.

Конечно, все эти новости крайне горестно слышать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ёинам" -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России и прочих странах бывшего СССР. Они всегда были и остаются одними из глав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в еди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ым Корея была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л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너의 손 안의 세상〉 기획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 및 캄차트카 생태관광 참여 촉구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기획의 일환으로 〈별개의 사업〉 개발 프로그램이 〈너의 손 안에 세상〉 생태기획에 참가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7월에 캄차트카로 떠나는 무료 생태관광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운데 참가신청서는 2026년6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이 기획은 〈생태환경보호적 변영〉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러시아에서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주제는 모두에게 친근해지고 있다. 전 러시아 여론조사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청년 84%가 국내, 지역, 도시의 생태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고, 49%가 환경보호 문제에 개인적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에 떠오르는 문제와 지역이 추진하는 활동 참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의 손 안에 세상〉 특별기획은 청년들이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너의 손 안에 세상〉 특별기획은 수년간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별개의 사업〉 활동기획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이 기획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칼리닌그라드,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등 러시아 내 다양한 지역들에서 35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함께 아스트라한, 무르만스크, 스웨르들롭스크, 펜자주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지역에서 5톤이 넘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올해 특별기획의 우승자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외진 곳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라 있는 캄차트카 변경으로 떠난다.

7일간 이어지는 일정에서 참가자들은 가공공장을 방문하고, 생태학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자체 환경보호기획을 개발하고,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캄차트카 변경의 전통과 역사, 자연을 배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기획 선발팀에 참가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친환경 습관에 동기가 된 이야기를 써서 제출하고, 러시아 보호구역, 생태적 안전 및 가공과 재활용품의 재활용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심사위원들이 18세부터 35세까지의 연령에서 10명을 선발하여 6월 30일 선발된 최종 명단을 공식 특별기획 사이트에 공지한다. 주어진 과제를 통과했지만 최종 10인에 선발되지 않은 참가자들에게는 생태환경을 주제로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념품이 든 100개 이상의 생태상자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기획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별개의 사업〉 프로그램은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부이다.

###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ир в твоих руках» и побывать на Камчатке в экотуре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Другое Дело» на платформе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пуска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Мир в твоих руках».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ют бесплатное экотурист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Камчатку в июле. Заявку можно подать до 15 июня 2026 года.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Экологическая тема в России становится ближе каждому. По данным ВЦИОМ, 84% молодежи интересуются экологией в стране, регионе или городе, а 49% чувствуют лич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вестке и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Спецпроект «Мир в твоих руках» направлен на то,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не только знала, но и действовала.

Спецпроект «Мир в твоих руках»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ходит в число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проекта «Другое Дело» на платформе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 это время он объединил более 35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Калининград, Екатеринбург и Казань. Вместе они собрали более пяти тонн мусора в Астраханской, Мурманской, Свердловской и Пензенской областях, а также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е.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и спецпроекта отправятся на Камчатку, один из самых чистых и нетронутых уголков природы России, включенный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лушать лекции экологов, разрабаты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исследовать заповедные зоны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парки. Кроме того, их ждет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яюща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иродой, традициями и историей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нужно написать мотивационное эссе о своих экопривычках и пройти тесты по заповедным зонам Росси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ереработке и утилизации вторсырь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выберет десять победи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30 июня список лучших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 на сайте спецпроекта.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ые справятся со всеми заданиями, но не войдут в десятку, смогут выиграть более 100 экологических боксов с сувенирами и техникой для создания видео на тему эколог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пецпроекта.

Программа «Другое Дело», реализуема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